

춘원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론

박 선 희*
Park, Sun Hee

1. 머리말

이광수에 대한 수식어 중 항상 따라 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계몽주의 문학, 또는 계몽 사상가이다. 논문이나 수필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 작품의 많은 내용에 계몽 사상이 짙게 깔려 있는 때문일 것이다.

이광수를 가리켜 丘仁煥은 한말에 출발한 근대 문학의 동반자로 근 반세기를 파란 속에서 활동한 文士요, 論客이며 산 증인¹⁾이며 조선의 생활 윤리와 관습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변혁성의 사상가라고 지적²⁾하였다.

근대라는 여명의 시작은 일본 식민지의 압력으로 인한 혼란기로 점철되었지만 우리 생활의 큰 변혁을 가져 온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1883년 朝英, 朝獨 수호조약 이래로 계속된 서구와의 체결은 그들의 외교 업무와 주거를 위한 서구식 건축을 짓게 하므로써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어 식민 정책에 따른 일본식 주택의 도입은 그 결과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문화적 충격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앞선 선진 문물의 물질적 발전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뒤쳐진 우리의 생활 문화를 뒤돌아 보고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당시의 계몽 운동 가운데는 의식적 개혁과 아울러 실제적인 생활 개선을 주장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고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를 걸쳐 살아 온 근대의 대표적 지식인 중의 한사람인 이광수가 어떠한 관점에서 주생활 개선을 표방하였는가를 살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광수가 비록 주거의 전문가적 분석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변혁기에 주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는가를 알아 보므로써 근대 주생활의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은 시와 소설 등을 제외한 작품 중에서 이광수의 직접적 생각이 표현된 논문, 수필, 時話, 雜纂 중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글을 선정해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고찰한다. 이광수의 글은 그 사상 내용에 따른 시대적 분류를 1(1920년 이전), 2(1921-1930), 3기(1931년 이후)로 구분³⁾하기도 하지만 본 고에서는 편의상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연구 방법은 시와 소설 등을 제외한 작품 중에서 이광수의 직접적 생각이 표현된 논문, 수필, 時話, 雜纂 중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글을 선정해서 내용분석 방법으로 고찰한다. 이광수의 글은 그 사상 내용에 따른 시대적 분류를 1(1920년 이전), 2(1921-1930), 3기(1931년 이후)로 구분³⁾하기도 하지만 본 고에서는 편의상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선정된 글은 (표1)과 같으며 論文 5편, 雜纂 1편, 時話 3편, 隨筆 5편으로 총 14편이 선정되었다. 기록된 글은 이광수 작품의 연구 자료로 가장 보편적인 三中堂 간행의 [이광수전집], 1962년도 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주생활 개선에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이광수가 주장한 생활 의식 및 가정 생활 개선을 살펴 본 다음 주생활 개선을 고찰한다

표1. 연구 대상 자료

유형	제 목	발표년도/발표지
논문	자녀중심론	1918/청춘15호
	혼인에대한의견	1917/學之光12호
	교육가諸氏에게	1916/매일신보
	농촌계발	1916-7/매일신보
	민족개조론	1922/開闢
雜纂	新生活論	1918/매일신보
時話	생활개선의급무	1940/三千里
	卒業生諸君에게드리는*告	1917/學之光13호
	農村父老를代하여在學하는 자녀에게	1924/開闢
수필	창조의생활	미록
	가정의美化	1933/조선일보
	은돌	1934/조선일보
	생활정화론	1935/조선일보
	생활의정신화합리화	1935/조선일보

*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1) 丘仁煥, [李光洙小説研究], 三英社, 1983

2) Ibid, 253

3) 삼중당간, [이광수전집], 1962

2. 이광수의 가정 생활 개선

이광수의 가정 생활 개선 내용은 크게 다음 세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생활 의식에 대한 개선 둘째, 가족 관계의 개선 셋째, 의례 생활의 개선이다. 이러한 가정 생활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 의식의 개선

이광수는 생활 의식을 논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 정리를 먼저 제시하였다. [教育家諸氏에게]서 기술한 생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生物의 行動의 全體는 卽 生活이니, 生物 즉 生活이요, 生活 즉, 生物이라. 고로 人生 즉 生活이요, 生活 즉 人生이니 生活を 離하여 何處에 更히 人生이 有하리요, 國家도 生活を 爲하여 在하고 文明도 生活を 爲하여 在하고 社會의 萬般現像이 生活を 爲하여 生活中心으로 하여 寧히 生活내에 生하는도다 ……., 生活이란 自己一身의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고 發展하며 更히 自己의 未來의 子孫을 爲하여 知識과 體力과 精神과 財産을 遺하는 萬般行動의 總和를 爲함이라 ……., 生活의 內容은 卽 健康과 幸福과 繁殖이니 此 三者를 獲得하기 爲하여 人類의 萬般活動이 生하는 것이라 健康을 爲하여는 衣와 食과 住와 安息과 醫藥과 運動이 必要하니 此는 三要素中에 最大한 者라.”⁴⁾

라고 하여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전제이면서 누구나 이를 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新生活論]에서는

“生活이라는 語의 [生]자, [活]자가 이미 示함과 같이 生活은 岩石모양으로 固定한 것이 아니요 生物모양으로 流動하고 變遷하는 것이외다 …… 우리의 最近 三十年

事를 생각하더라도 白衣를 벗고 黑衣를 입게 되고 상투를 베고 수염을 깎으며 四書五經을 버리고 物理, 化學을 배우며 兩班이 장사를 하고 婦人이 中門을 나서게 되었으니 實로 隔世의 感이 있으리만한 大變化의 다 …… 生活은 流動합니다. 變化합니다… …”⁵⁾

라고 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생활이 변할 수 있음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식적 변화와 무의식적 변화로 구분하여 논하고 과거에는 비판 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시대에 따른 비판 의식이 요구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批判 속에서 새로 潑潑한 精神的活動이 생기고 熱烈한 進化의 欲求가 생기고 新生活의 理想과 方式이 明瞭하게 眼前에 떠나올 것이외다.”⁶⁾

또한

“이렇게 時代와 處所를 따라 生活의 方式, 卽 道德, 習慣, 制度 등이 다르다 하면 朝鮮 아닌 中國의 게다가 現代도 아니요, 3천년전인 周末의 形便에 相當하던 儒敎가 朝鮮에 습할 리가 없습니다.”⁷⁾

“富는 生活의 根本要件이어늘 儒敎는 吾族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 諸般 自然科學과 商工業의 敎育을 勸獎하여 …… 科學家의 社會의 地位를 昇進하여 그네에게야말로 眞正한 兩班의 稱號를 드러야 하겠습니까.”⁸⁾

하여 유교 사상의 장기적 영향이 낳은 사회 발전의 저해 및 생활에의 폐해 등을 여러 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개혁에 따르는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시급한 생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5) "신생활론", 17권, 516-517쪽

6) "신생활론", 17권, 521쪽

7) "신생활론", 17권, 522쪽

8) "신생활론", 17권, 525쪽

4) "교육가제씨에게", 17권, 73-74쪽

“生活改善은 朝鮮人을 爲하여서는 焦眉의 緊急事입니다 …… 舊의 불합리를 버리고 합리의 新을 취하는 것입니다 …… 畏友 吳億氏는 일찌부터 이 問題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어 特히 飲食物의 營養의改善에 많은 研究를 쌓으시다가 이제 奮然히 生活改善運動의 陳頭에 나서시니 氏의 近著〔生活進路〕와 圖解는 그 第一聲입니다.”⁹⁾

2) 가족 관계의 개선

이광수는 전통 사회에서 무엇보다 효에 집착한 결과 부모 중심의 편파적인 가족생활이 되는 점을 “子女中心論”에서 父祖中心의 舊朝鮮이라는 단락 하에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朝鮮서는 孝가 最上の 道德이었었고 孝의 內容은 子女된 者가 父母의 志를 承順함이었던。父母가 生存하는 동안에는 子女에게는 아무 自由가 없고 마치 專制君主下의 國民과 같이 父母의 任意대로 處理할 奴隸나 家畜과 다름이 없었다。父母가 生存하는 동안뿐더러 死後에도 3년의 居喪이라는 嚴法이 있고 그 후에는 奉祭祀라는 大義務가 있어서 子女의 時間과 精力과 金錢을 浪費하며 活動의 自由를 檢束함이 莫甚하였다。그러므로 孝子가 되려는 子女는 一生에 父祖를 위하여 自己를 犧牲하는 이외에 아무일도 할 餘裕가 없었다.”¹⁰⁾

이광수는 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 예에 맹속된 가족 관계를 비판한 것이며 유교 그 자체보다 유교라는 名義와 권위아래 조선 사상에 끼친 영향을 논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유교 자신에 속한 것이나 조선 유학자의 특유한, 혹은 그릇된 해석에서 나온 것도 있으며 이에 대한 편견이나 敵愾心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¹¹⁾

자녀에 대한 생각을 보면

“子女는 自己便으로 보면 獨立한 個體니,

…… 爲先 子女에게 獨立한 自由로운 個性을 주어라 …… 心地가 그릇되었다 함은 子女를 父母 自己의 所有物로 알아서 子女를 教育하거나 말거나 自己내의 自由라고 생각하여 같이 子女를 爲한다 하더라도 子女自身을 위함이 아니요 父母 自己의 目前의 재미라든지 老後의 安樂이라든지 또는 死後의 奉祀를 위하여 함이니 이리 하더라도 그 結果는 같다 하더라도 그 精神은 確實히 잘못 된 것이다 …… ”¹²⁾

라고 하여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의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논리에 대한 근거로 같은 글 “자녀중심론”에서 서구의 사회사 변동의 예에 근거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들었다. 따라서 이광수는 무엇보다 자녀의 올바른 교육은 사회적 장래를 위한 2세대의 교육으로써 중시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모나 처의 역할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사람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남녀 교육의 평등함을 제시하였다.¹³⁾

3) 의례 생활의 개선

이광수는 의례 중 무엇보다도 조혼에 대한 관습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혼인의 조건으로 양인의 건강, 정신력, 생리적 정신적인 충분한 발육, 경제 능력, 당사 상호간의 연애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연애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 것은 상대적으로 애정과 무관하게 혼인하는 전래의 관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戀愛야말로 婚姻의 根本條件이외다。婚姻없는 戀愛는 想像할 수 있으나 戀愛없는 婚姻은 想像할 수 없는 것이외다。從來로 朝鮮의 婚姻은 全히 이 根本條件을 無視하였읍니다。이 事實에서 無數한 悲劇과 莫大한 民族的損失을 根한 것이외다 …… 戀愛의 根據는 男女 相互의 個性의 理解와 尊敬과

9) “생활개선의 급무”, 17권 472쪽

10) “자녀중심론”, 17권, 40

11) “신생활론”, 17권, 543쪽

12) “자녀중심론”, 17권, 42-45쪽

13) “혼인에 대한 의견”, 17권, 53-61

따라서 相互間에 일어나는 熱烈한 引力的 愛情에 있다 하오.”¹⁴⁾

또한 이광수는 “新生活論”에서 형식주의적 관습을 지적하였는데

“1年동안 [아이고 아이고]의 凶音으로 所謂 罪人の 懲役生活를 하고, 그 後에야 적이 自由를 얻지마는 벌써 人生의 黃金時代는 다가고 말고 이 밖에도 冠婚喪祭에 理由도 意味도 알 수 없는 虛禮를 爲하여 …… 多大한 金錢을 浪費하고 ……”¹⁵⁾

라고 하여 상례에 따른 시간적 생활 소모를 지적하고 기타 의례의 실용적 간소화를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같은 글에서 이광수는 사회적 주체자로서의 일반 평민의 가치와 남존여비를 타파해야 한다는 평등적 계급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사보다 공과 신의를 중시 여기고 사회 봉사에 대한 것을 생명처럼 여길 것을 강조하였으며 수입품 사용을 자제하고 근검 저축을 통하여 생활의 경제적 자립을 논하였고 1종 이상의 전문 학술이나 기예를 배워 반드시 1종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도 역설하였다.

3. 주생활 개선

이광수는 대체적으로 선진 외국의 문물을 통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촌계발]에 나온 다음의 기록은 선진 외국 풍물을 통해 본 그네들의 물질적 발전에 대한 부러움과 아울러 우리나라 주거 생활의 향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이날에 映寫한 그림은 大概 文明人の 生活이요, 鬱蒼한 森林, 整齊한 田畝와 灌溉, 堤防, 美國서 蒸氣機關으로 耕作하는 樣, 牧畜의 實景, 村落의 美觀, 小學校의 實業, 英美의 華麗繁華한 都會와 養蠶·紡績의 安壯한 寫景을 보이고 陸軍과 軍艦과 港

口에 林立한 船舶을 보이고, 最後에 이 村中의 將來의 想像畫를 보였소. 그 번쩍한 家屋과 번듯한 道路며 後園의 果樹와 學校와 會館에 遊樂하는 樣과 洞民이 富饒하게 즐겁게 지내는 樣을 보였소.”¹⁶⁾

“이것은 英國이라는 나라의 村이요, 이 집들 보시오. 우리 村中 집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農家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¹⁷⁾

또한 같은 글에서 삼림의 과수 종류를 비롯하여 도로, 측사 관리, 소득 방식 등 생업에 대한 실용성과 합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이 이광수는 생활의 제반 개선점들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총체적 계몽 작가였다.

한편 여러 글에서 나타난 이광수의 주생활 분석과 비평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수필 중 [창조의 생활]¹⁸⁾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다음은 이광수의 주생활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해 본 것이다.

1) 주생활의 정체성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선진 문물의 도입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광수는 우선 근대적 생활의 도입에 따른 혼란함을 지적하고 어떤 기준을 설정하여 생활의 정체성을 찾을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農漁山村의 生活은 原始的이요, 都市生活은 舊式生活, 新式生活의 隣接 二重混合의 뒤범벅이다 …… 住宅·衣服·禮節 모두

16) “농촌계발”, 17권, 94쪽

17) “농촌계발”, 17권, 92쪽

18) “창조의 생활”, 14권, 340-343쪽. 이 글은 가사와 전공의 석사 출신인 미국 여성과 국제 결혼한 金周恒의 집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기술한 것이다. 이광수는 이 집의 생활 모습을 무척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부업에 마련한 부인의 지혜로운 설비에 감탄하면서 스페이스를 매우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4) “婚姻에 대한 意見”, 17권, 55-56쪽

15) “新生活論”, 17권, 526쪽

다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뒤범벅이다. 여기서 우리는 精神上으로 統一을 잃고 經濟上으로 浪費를 하게 된다 ……그러면 生活方式 整理統一의 原理를 삼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合理化의 一言으로 足할 것이나 …… ”19)

라고 하여 그 정체성의 기준을 합리화에서 찾을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朝鮮의 市街와 村落과 家屋에 不淨의 심벌인 무너짐과 냄새와 파리와 不秩序가 없어진다 하면 이것이 곧 天堂이요, …… 우리는 村落을 지날 때에 어떤 집의 外貌를 보고 다만 그 집 主人의 貧富를 판단할 뿐 아니라 그 勤怠를 판단할 뿐 아니라 그의 趣味·信仰等 性格과 精神生活의 程度를 判斷할 수 있는 것이니 [生活은 가장 참된 藝術이라]함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20)

라고 하여 가옥이나 촌락의 모습과 거주자의 인격적 측면을 결부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광수가 주거의 물리적 기능 이외의 정신적 가치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 주거 위생과 목욕실 설치

위생 문제는 채광 및 통풍과 더불어 개화기 때부터 대두되었다.²¹⁾ 이광수도 위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민족개조론”에서

“家屋, 衣食, 道路 등의 清潔等, 衛生의 法則에 合致하는 生活과 一定한 運動으로 健康한 體格의 所有한 者가 되게 …… ”22)

라고 하였고, 또

“金大監은 이 村에 一富요 …… 집도 이 村中에 第一 크고 華麗하오 …… 그의 집

房 안과 庭除는 늘 不潔하오 …… 병의 대부분은 不潔한데서 납니다 …… 더구나 부엌이 不潔한 것은 病을 養成함이나 다름 없습니다.”23)

“居處하면 집과 房과 부엌과 뒷간과 마당과 門前等を 包含하는 것이다. 居處의 第一要件이 衛生的임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24)

라고 하여 위생 생활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주공간 내에서 더 유의할 곳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淨潔은 居處道德의 第一條여니와 가장 淨潔을 要하는 곳은 가장 不潔하기 쉬운 곳이니 이것은 부엌과 마루 밑과 뒷간과 수챗구멍이다.”25)

또한 신체적 건강을 위한 목욕 위생을 권장하였는데 특히 일본인들의 목욕 관습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목욕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沐浴後에 會場은 酒餅을 供饋하고 沐浴과 健康과의 關係가 密接함을 更設하고 明日에는 힘써 植木하기를 勸獎하였소.”26)

“日本人이 …… 最히 顯著한 것은 沐浴의 愛好. 都市에는 每百戶 乃至 二百戶에 반드시 一戶 沐浴湯이 有하여 人民들은 平均 隔日 入浴하여 或者 每朝 入浴하는 자도 有하고 私家에 中流以上生活을 하는 者는 반드시 家內에 一箇 浴室을 設하여 …… 실로 入浴은 彼等の 日常行事의 不可缺할 事이라.”27)

“요강의 使用은 絶對로 廢할 것 중에 하나요. 浴室의 附設은 絶對로 있을 것 중에 하나다.”28)

19) “생활의 정신화 합리화”, 13권, 527쪽

20) “생활정화론”, 13권, 497쪽

21) 김순일(1982),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6호, 29쪽

22) “민족개조론”, 17권, 201-202쪽

23) “농촌계발”, 17권, 87-99쪽

24) “생활정화론”, 13권, 529쪽

25) “생활정화론”, 13권, 530쪽

26) “농촌계발”, 17권, 102쪽

27) “東京雜信”, 17권, 489쪽

28) “생활정화론”, 13, 530쪽

“그날 저녁에 會長은 家側에 新設한 沐浴에서 淸日 家屋을 掃除한 靑年들이 入浴하였소.”²⁹⁾

이렇듯이 이광수는 주거의 공간 위생 뿐만 아니라 신체의 위생 생활을 위한 욕실 설치를 주장하였으며 농촌의 경우 마을 사람들의 건강 위생을 생각한 공동 욕탕의 설치 방법까지 가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욕실 및 변소 등의 위생 문제는 당시에 많은 선각자들이 빈번히 논의되었던 것³⁰⁾으로 보아 주생활 중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하기를 원했던 공통의 과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실의 기능적 분화

조선조 주거의 공간 배치는 당시 들어 온 서구식 주공간의 집약적이고 기능적 분화 형태와 대조적 차이를 보이므로써 많은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양식 주거의 직접적 도입은 1880년대에 시작하여 1890년 이후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884년 인천 세창양행 사택을 비롯하여 1909년 인천 오래당 저택까지 10여채의 양옥이 지어졌다. 세창양행 사택은 벽돌조 2층으로써 사무실, 침실, 오락실, 식당 등이 복도로 연결된 이탈리아 양식의 집이었다.³¹⁾ 이러한 양옥의 주거 공간은 기능적인 면에서 당시의 지식인들과 상류계층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된 점이 있을 것이다.

이광수도 공간의 용도별 분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爲先 우리의 首都 서울. 번적번적한 大路邊의 큰 建物에 朝鮮 사람의 것이 몇이나 됩니까 …… 우리들이 사는 家屋은 …… 食堂, 寢室, 常居室의 區別조차없고 …… ”³²⁾

하여 양옥이 지닌 기능적 성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9) “청소 등 집관리”, 17, 102쪽

30) 김순일(1982),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6호, 29쪽

31) (한국주택자료집 개항기에서-해방전까지)(1994), 연세대학교 주생활과 동창회편, 8-9쪽

32) “민족개조론”, 17권, 222쪽

4) 설비의 보완

이광수는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제반 시설 등의 미비에 대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自用的 水道나 下水道의 設備도 없고 浴室이나 圖書室같은 것은 더구나 없고 그리고 飲食이나 其他 日常生活이 아직 原始時代의 때를 벗지 못하도록 幼稚하고 貧弱합니다. 더우기 農村에 가면 그 貧弱한 慘狀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³³⁾

이렇게 시설의 열악함을 극도로 비판한 것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서구의 주공간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온 것 같다. 즉, 실내 공간의 집약화란 무엇보다 급배수 시설의 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열악한 시설 상태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5) 공간 구조와 동선

이광수는 주공간의 배치에 따른 채광 및 동선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朝鮮家屋에 (西北은 除外하고) 根本的인 缺點은 부엌을 正面으로 두기 때문에 안방이 光線을 못받게 되는 것과 便所를 輕視하는 것과 行廊의 位置로 하여 門前에 不潔한 것과 안채·아래채·사랑채 등의 連絡이 없는 것 등이다. 家屋內의 各部分의 連絡을 緊密히 便利히 하는 것은 여러가지 能率에 關係될 뿐더러 寢室과 便所가 屋內로 連絡이 안되는 것은 요강의 使用과 雨期와 多寒期에 保健上에도 關係가 있는 것이다.”³⁴⁾

라고 하여 평면과 채광과의 관계 및 채로 분리된 조선조 주택의 배치가 비효율적인 동선 체계임을 지적하면서 집약적인 평면 구조의 장점을 논하였다. 또한

“좁은 기둥, 굵은 서까래가 무슨 所用이며 부연이니 추너니 하는 것은 없고도 견딜

33) “민족개조론”, 17권, 222쪽

34) “생활정화론”, 13권, 529-530쪽

것이요. 두벌대 세벌대도 없고도 견딜 것이다. 하물며 여러 간 광과 줄행랑과 大門·中門 같은 것은 時代錯誤의 存在요, 부엌을 넓게 하는 것은 能率을 減損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 節約하여 便所·浴室·花壇 等に 쓸 것이다. 壁을 二重으로 하는 것은 朝鮮의 氣候에 비기어서 必要하고 두꺼비집을 겹으로 바르는 것과 甲窓을 하는 것은 保溫上 도리어 經濟的이다.”³⁵⁾

라고 하므로써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제시하였고 기후적인 여건을 고려한 이중 벽과 갑창 등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6)미적 고려

이광수는 주거 생활의 미적 배려에도 관심을 가졌다. 일본 주택을 보고

“今日의 朝鮮의 家庭처럼 美를 돌아 보지 아니한 家庭은 없을 것이다 …… 日本人의 집을 보면 [도코노마](床間)의 書齋簇子와 [이게바나](生化), 오카모노 등을 놓은 房 한 間은 집이라고 생긴데는 다 있는 것이어니와 …… 便所에 꽃을 꽂는 이도 있다.”³⁶⁾

라고 하여 미적 치장에 관심을 두었으며,

“우리들이 사는 家屋은 어떠합니까. 낮고 더럽고 아무 建築의 技巧도 裝飾도 없고 …… ”³⁷⁾

아름다운 환경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의 주생활 수준에 매우 안타까움을 지닌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적 고려를 창조적 정신으로 할 것을 주장한 다음의 기술은 이광수의 개선론이 단지 맹목적인 서구의 지향만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家屋을 新築할 때에는 舊習과 世俗에서

超脫하여 마땅히 創造的으로 할 것이요 이미 있는 집을 사거든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美化하도록 衛生化하도록 研究할 것이다.”³⁸⁾

7)온돌

다음과 같은 이광수의 온돌 비평은 좌식 생활의 비활동성을 논한 것으로 보여진다. 온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산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입식 생활의 부분적 도입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溫突은 누우면 덥고 앉으면 춥고 煖爐 피운 방에는 누우면 춥고 앉아야 덥다. 溫突은 安息的이요 煖爐는 活動的이다. 朝鮮에 와 있는 日本 사람들은 寢室 하나만을 溫突로 한다. 이것이 도리어 合理的이다. 溫突에 맛을 붙이면 겨울에는 밖에 나오기를 무서워 한다. 老人에게 合當하다. 젊은 活動的인 人物은 잘 때 以外에는 斷然히 溫突에 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家屋制度를 改良할 必要가 있다.”³⁹⁾

이러한 내용은 입식 생활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한⁴⁰⁾ 유길준과는 사뭇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청소 및 집관리

이광수는 위생 의식에 당연히 따르는 청결 행위를 많이 강조하였다. 즉,

“會員들은 熱心으로 마당을 쓸고 家具의 먼지를 떨며 婦人이 수건을 쓰고 부엌 掃除를 행하오. 頑固한 父老들도 이렇게 家內를 清潔케 하는 데는 大反對는 아니하였나 보오. 會場은 만나는 대로 會員에 致賀를 하고 自己도 집에 돌아 와 몸소 家族을 데리고 大掃除를 行하며 山에 가서 淨潔한 黃土를 파다가 부엌과 庭內에 폼소. 다른 會員들도 그와 같이 庭園과 부엌에 黃土를 폼

38)“생활정화론”, 13권, 530쪽

39)“온돌”, 13권, 407쪽

40)김순일(1982),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6호, 31쪽

35)“생활정화론”, 13권, 530쪽

36)“가정의 미화”, 13권, 387쪽

37)“민족개조론”, 17권, 222쪽

소. 이리하여 四,五十戶는 쫓혀 새로운 집이 되었소.”⁴¹⁾

와 같이 부엌과 뜰에 흙을 이용한 소규모 작업을 통하여 집이 아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주거 관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생활에 대한 이광수의 전반적인 의식은 삶의 질적 향상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4. 맺음말

이광수는 생활과 인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면서 시대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근간으로 하여 가정 생활의 제반 개선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오랜 세월 잠식된 유교적 생활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기본적 개선 의식 중 가족 관계를 많이 다루었으며 특히 자녀와 여성의 인격적 대우 및 교육을 많이 강조한 점은 가족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주거 내 생활 양식의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시대 주공간의 구성 및 배치가 남녀유별 및 여성의 제한된 집 안 활동과 깊은 연관을 가졌던 만큼 새로운 주생활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이광수의 이러한 개선 의식은 일반 민중들에게 중요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광수는 또한 조선조 의례가 과도한 형식으로 인해 많은 폐단을 야기한다고 보고 상례, 제례, 혼례 등의 비합리적인 점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생활 개선 내용은 주거생활의 발전적 합리화에 기본적 의의를 두고 첫째, 근대의 혼란스런 분위기에서의 생활 정체성의 확립 둘째, 위생 설비와 목욕실의 설치 셋째, 공간의 기능적 분화 넷째, 설비의 보완 다섯째, 공간의 능률적 배치 여섯째, 미적 생활 환경의 조성 일곱째, 위생적 주거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광수의 이러한 계몽적 개선 의식은 대체로 근대화된 일본이나 서양 주거의 비교를 통해 본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모방이나 추상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맞는 창의적 주생활을 강조하고 아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전문가 못지 않은 탁견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개선론을 높이 살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1. 삼중당간(1962). [이광수전집] 1권-20권
2. 김순일(1982). “開化期の 住意識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6권106호
3. 임창복(1991). “日帝時代 韓國人建築家에 의한 住居近代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5호
4. 김난기, 윤도근(1987). “日帝의 住居遺産과 美軍政期 住宅事情 考察(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5호
5. 윤일주(1982). “韓國開化期の 洋屋建築에 관한 調査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6권 107호
6. 金鵬九(1964). [李光洙研究(上)], “新文學初期의 啓蒙思想과 近代의 自我-春園의 경우-”, 동국대학교출판부.
7. 정명환(1970). “이광수의 계몽사상”, [성곡논총] 제1호
8. 김동인(1976). “춘원 연구”, [김동인전집6], 삼중당
9. 김영덕(1970). “전통가운데 현대의 불을 밝힌 육당과 춘원”, [녹원] 11집, 이화여대출판부
10. 이상숙(1981). “이광수의 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교육”, [어문론집] 22집, 고려대학교출판부
11. 손연자, 모윤숙(1965). “작품에 나타난 농촌 계몽운동”, [한국어문연구] 6집, 이화여대출판부

41) “청소 및 집관리”, 17권, 102쪽